

## 명 암 ❷

어떤 화가가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에서 열심히 대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완성이 된 그림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캔버스에다가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그림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두 그림을 한참동안 비교해서 살핀 끝에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즉, 첫 번째 그림에는 햇볕에 드러난 자연의 밝은 모습만 그려져 있는데 비해서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까지 그려져 있던 거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는 이유도 다른 한편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고, 거무죽죽한 나뭇가지에서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리듯, 갈등의 쓰라림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감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늘이 없는 햇볕 아래의 삶은 권태롭기만 합니다.

<생각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김인철>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